

울산힌돌교회 셀모임 나눔지

2025년 3월 16일 주간

셀 모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하나 됨이 있는 시간, 위로와 공감에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됩시다!

찬양 -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ICE BREAK!

내가 태어나서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2가지는? 왜?

1. 오늘 본문 말씀 / 민수기 1:1-19

2.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광야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몇가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몇가지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큰 애굽을 비좁은 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관점을 배웁니다.

[민 1: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입니다. 이것은 메차르에서 왔는데 메차르는 비좁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비좁은 땅에서 나왔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애굽은 비좁지 않습니다. 큼니다. 화려합니다.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지니 그 땅이 비좁고 초라한 땅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관점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눔 :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나는 어떤 것이 [미츠라임]으로 보여지나요?

둘째로,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민 1: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1: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날과 그것을 완성한 날이 같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업무였지만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나눔 : 순종을 통해 큰 복을 누렸던 경험은?

셋째로,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민수기 1:5-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야하는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엘]입니다. 엘로힘 이지요. 그들의 아버지는 애굽에 있을 때 고통과 중역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이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새겨 넣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눔 : 고난이 복이 된 경험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3. 다함께 기도 - 기도부장 인도

1)우리 교회가 믿음직스럽고 영적으로 건강한 중직을 세워가게 하소서.

2)원로 목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 영성, 지성, 체력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3)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4. 헌금 및 광고(찬양하면서)

5. 주기도문으로 셀 모임을 마칩니다.

이세상은 내집 아니네

진 많은이세 상 은 내집아니네 내 모든보화는 저
저 천국에서 모 두 날기다리네 내 주예수피로 죄
저 영광의땅 에 나 길어살겠네 손 잡고승리를 외

하늘에있 네 저 천국문을 열 고 나를부르 네
씻음 받았 네 나 비로약하 나 주 님날지키 리
치는성도 들 의 기뻐찬송 하 늘 올려퍼지 네

나는 이 세 상 에 정들 수 없도 다

오 주 님 같 은 친구없도 다 저 천국없으 면 난

어떻게하 나 저 천국문을 열 고 나를부르 네

나는 이 세 상 에 정들 수 없도 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울산흰돌교회